

여름철 傳染病의 豫防

成 有 運

保健社會部 보건국장

萬物이 活潑하게 成長하는 常夏의 季節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철이면 30°C 이상을 오르내리는 더위와 지루한 장마로 生活에 짜증이 나고 게을러지며, 또한 氣候條件으로 各種 細菌이 쉽게 繁盛하게 되어 여러가지 食品의 腐敗可能性이 높아지며, 不潔한 環境으로 인해 무서운 傳染病을 옮기는 파리, 모기 등 有害昆蟲이 繁殖하여 各種 疾病에 感染될 憂慮가 많다. 여름철에 發生하는 各種 疾病의 主症狀은 대개 泄瀉를 隨伴하는 것으로 이러한 泄瀉와 관련된 疾病으로는 腸티푸스, 이질, 콜레라, 食中毒 등이 있다. 有害昆蟲으로 인한 疾病으로는 늦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주로 어린이에게 많이 發病되는 日本腦炎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各種 여름철 疾病을 事前에 豫防하여 여름을 오직 茂盛한 成長과 旺盛한 生産의 季節로 享有하기 위한 各 疾病別 事前知識을 간추려 紹介하기로 한다.

1. 腸티푸스

腸티푸스는 腸티푸스를 現在 앓고 있는 患者나 그 菌을 가지고 있는 保菌者와 直接 혹은 間接으로 接觸하여 傳染된다. 腸티푸스는 주로 汚染된 음료수나 식품에 의하여 傳播되며 때로는 과일이나 야채, 우유, 乳製品, 魚貝類 등이 傳播의 媒介物이 되기도 하며 菌을 묻힌 파리가 放置해 둔 食物을 汚染시켜 이를 攝取 함으로써 感染되기도 한다. 腸티푸스 菌은 水中에서 數日間 生存可能하므로 患者 排泄物의 管理소홀로 食水原

이 汚染되어 많은 사람이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

腸티푸스에 感染되면 처음에는 惡寒과 함께 열이 나며 頭痛, 腰痛, 四肢痛, 食慾不振, 泄瀉(후에 便秘) 등으로 시작되며 기타 器管의 病變으로 오는 重毒한 全身症狀을 초래한다. 중요한 合併症으로는 腸出血이 있다. 이는 病의 輕重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장출혈이 오게 되면 갑자기 열이 떨어지며 脈이 빨라지고 惡寒, 發汗 등이 따르게 된다. 腸티푸스 치료를 위해서는 크로람페니콜이 아직도 좋은 치료제이다. 解熱劑를 사용하면 다른 치료제의 藥效가 끊어져 다시 惡寒이 나고 열이 나서 몹시 괴로울 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도 알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열음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질병은 腸에 潰瘍이 생겨서 腸出血과 腸穿孔이 생길 위험이 많고 비교적 오랜 시일을 끌어서 영양문제가 考慮되어야 하므로 食餌療法이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2. 痢 疾

痢疾은 크게 細菌性 痢疾과 아메바性 痢疾로 區分된다. 세균성 이질의 경우 泄瀉로서 갑자기 시작되며 腹痛이 있고 뒤가 묵직하고 血液, 粘液과 膿이 混合된 대변을 자주 보게 된다. 細菌性 痢疾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되나 소아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 상하수도 보급의 확대, 오물의 위생적 처리, 위생관념의 향상, 소독 이행, 유아보건법의 발달 등에 따라 점차로 감소되어 가

고 있다. 汚染食品이나 汚染飲料의 攝取로 傳播되거나 파리나 혹은 患者, 保菌者의 대변으로 汚染된 물건의 손을 거쳐서 입으로 傳播된다. 汚染된 乳製品이나 물에 의하여 集團發生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적절한 電解質과 水分 供給이 필요하며 2次的으로 「설파제」와 「항생제」를 사용한다. 설파제 抵抗菌株에 대하여는 「클로람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抗菌劑를 사용한다. 한편, 아메바성 痢疾은 확실한 發病始初를 모르게 서서히 시작하여 胃腸障礙, 食慾不振, 泄瀉 또는 便秘, 腹部不快感, 혹은 粘液便(배로 血液混合)이 나오고 大腸 全域에 潰瘍性病變을 일으키고 慢性으로 경과한다. 본병은 排泄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糞便에 汚染된 野菜, 특히 날것을 混濁하게 먹은 食品에 의한 수가 많고, 汚染된 물, 파리, 感染된 食品取扱者의 汚染된 손으로 傳播되기도 한다. 感染者의 大多數는 거의 아무런 증세 없이 어느 기간 경과하는 일이 많다. 일반적인 증세는 아니나 泄瀉는 보통 많이 경험하게 된다. 설사의 회수나 정도는 병의 예에 따라 다르며, 어떤 때는 泄瀉와 便秘가 교체되는 수도 있다. 輕症은 약효가 나타나는데 反하여 重症일수록 치료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본병 후에는 여러가지 合併症이 따를 수 있다. 아메바성 痢疾인 경우에는 「에메친」 혹은 「항생제」로 充分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에메친」은 이질의 營養型에는 작용하나 囊胞에는 무효하므로 다른 「殺아메바劑(Amebicide)」를 병행 사용하여 완전히 아메바의 영양형 및 낭포를 滅殺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再發한다.

3. 콜레라

콜레라는 不顯性感染이 많은 疾病의 하나로 傳播防止에 莫大한 支障을 준다. 불현성감염이란 感染을 받았으나 症狀의 發顯(發病)에 까지 이르지 않는 狀態다. 腸티푸스의 回復期 또는 永久 保菌者가 疾病傳播의 重要한 役割을 하고 防疫上의 問題가 되듯이 「콜레라」에 있어서도 不顯性感染者가 問題 된다. 대부분의 文獻에는 「콜레라」는 重症인 急性腸管 傳染病으로서 突然 發病하

고 多量의 水樣性 泄瀉와 嘔吐로 인해서 急速한 脫水症狀이 일어나 酸血症과 循環系의 虛脫狀態로, 發病後 數時間內에 死亡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記載되어 있어서 典型的인 臨床症狀의 例만을 「콜레라」로 診斷하기 쉽다.

최근에는 불현성 감염문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콜레라」菌은 乾燥, 日光에 露出 또는 他菌과의 共同生存에서 잘 견디어내지 못한다. 콜레라菌에 依한 물의 汚染은 반드시 感染者가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汚染은 感染者가 除去되면 數日內로 菌이 사라진다. 그러나 콜레라患者의 大便으로 汚染된 곳이나 寢具에서는 콜레라菌이 相當히 長期間 生存하며, 이것이 다른 間接的인 方法에 依하여 徑口的으로 侵入하여 傳播에 關與한다. 汚染된 물이나 人糞으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 등의 攝取에 의해서도 많은 發病例을 보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병의 병원균에 감염되면 脫水가 심하여 눈은 陷沒하고, 피부는 탄력성을 상실한다. 입술, 코, 손발끝에는 靑色症(cyanosis; 紫藍症)이 뚜렷하고, 근육, 胸腔漿液膜은 일반적으로 건조된다. 콜레라는 심한 脫水가 隨伴되므로 急速한 水液의 供給이 絕對的으로 必要하다. 急性脫水症에 있어서는 必히 “電解質平衡”이라는 것을 考慮하고 治療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항생제의 사용은 排菌期間을 短縮시킨다. 「테트라사이클린」은 普通 1週日乃至 10日間の 平均 排菌期間이 3日로 短縮된다.

4. 食中毒

食中毒은 食品에 의하여 갑자기 시작되는 胃腸炎으로 中毒이나 感染에 의하여 특수한 集團에 發生되는 疾患의 총칭이다. 각종의 有機無機物質이 中毒의 原因이 되며 어떤 微生物은 食品內에서 毒素을 產出, 이 毒素에 의하여 食中毒을 일으키게 된다. 食品에는 독버섯, 복어알 등 그 자체가 유독한 것도 있다. 食中毒은 飲食物 媒介感染症과는 구별되는데 食中毒의 결과는 곧 명백하여지며 섭취한 원인식품의 量은 病的 輕重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식중독, 즉 細菌性 食中毒만을

의미한다. 葡萄球菌은 광범위한 全身 및 局所 盛染에 附加하여 食品內에서 자라서 食중독을 일으킨다. 食중독을 일으키는 主要原因食品으로는 돼지고기이며 이는 제삿집에서의 섭취가 가장 많으므로 夏節期 농촌에서의 食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주의가 요망되는 식품이라 하겠다. 또한 魚貝類도 중요 食중독 원인식품으로 擡頭되고 있으며 들놀이, 소풍, 修學旅行時 학생들의 도시락으로 인한 集團食中毒도 重要視해야 할 점이다. 통조림食品 역시 食中毒 原因食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통조림을 購入할 때는 製造日字, 外形의 變化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썰은 고기나 아이스크림 등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適正溫度를 유지하며 오래 보관한 것은 일단 의심해야 될 것 같다. 이상에서 言及된 疾病들은 주로 消化器系 疾患으로 이를 事前에 豫防하기 위하여는

첫째, 個人衛生으로서, 食事前에 반드시 손을 씻고, 손톱, 발톱을 깨끗히 깎으며, 더러운 물에서 놀지 않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며,

둘째, 環境衛生으로서 쓰레기나 汚物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말 것이며, 便所에 뚜껑을 덮고, 하수구를 청결히 하고, 路邊에 放尿, 放糞하지 않을 것이며, 파리를 잡도록 한다.

셋째, 食品衛生으로서, 물은 끓여 마시고 날음식을 먹지 말 것이며, 행주는 자주 삶아서 사용하고, 防蟲網을 설치하고, 喪家에서 集團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할 것이며 개천에서 더러운 물로 야채를 씻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患者와의 접촉을 피하고 유사환자가 발생하면 곧 隣近 보건소에 申告하여야 한다.

5. 日本 腦炎

일본뇌염에 일단 걸리면 이렇다할 특효약이 없고 사망율이 높으며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무서운 後遺症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뇌염은 여름철이면 항상 우리를 威脅하는 傳染病의 하나로써 누구나 알고 있듯이 모기에 의하여 傳染되며 급격히 發病하여 고열과 심한 意識障礙가 있으며 腦 및 髓膜症狀이 나타나는 急性疾患

이다. 뇌염을 豫防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돼지우리나 외양간 등 畜舍를 깨끗이 해주는 한편, 이에 병행하여 살충제를 撒布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家屋의 창문, 출입구 등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防蟲網을 설치하고, 집 근처 웅덩이에 고인 불필요한 물이나 잡초는 제거할 것이며, 몸이 피로하지 않게 적당히 쉬게 하고 뜨거운 햇볕을 많이 쬐이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言及한 것 외에 1976年 6月末에서 7月初에 강원, 전라, 경북지방의 女子中·高生 사이에 발생하였던 集團轉換症에 對하여 살펴보면 이는 感情의 集積을 身體의 症狀으로 轉換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感受性이 예민하며 肉體적으로 연약하고 心理적으로 不安한 狀態下에 있는 少女들에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狀態의 少女들은 자신들의 感情의 쌓임(集積)을 理性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身體內 中樞神經을 刺戟하여 여러가지 身體의 症狀(허리, 가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고, 손 발이 떨리는 症狀)으로 轉換되어 나타남으로써 발병되며, 이러한 狀態의 患者를 다른 비슷한 狀況에 있는 少女들이 곧 일종의 催眠狀態와 같이 흥내냄으로써 集團化되는 것으로, 이러한 症狀은 일종의 최면상태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나 思春期와 初經前後·신체적으로 허약한 소녀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列擧한 各種 疾病의 豫防을 위하여 保健社會部는 豫防接種, 環境消毒 및 患者發生時 迅速한 措置로 擴散을 막고 患者 早期發見, 早期治療를 위한 機動防疫班 編成 運營等, 春夏季 防疫對策計劃을 樹立, 全國적으로 非常勤務에 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國家防疫事業에 보다 큰 效率化를 위하여는 各級教育業務에 從事하고 계신 教育者 여러분들이 疾病으로 인한 經濟的, 身體的 損失과 疾病豫防에 대한 保健教育의 實施等 國民啓蒙에 적극 協調함으로써 國民 各者가 自身의 健康은 自身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個人衛生, 環境衛生, 食品衛生에 스스로 조심케 함으로써 夏節期 疾病豫防이라는 所期의 目的은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